

『金匱要略』의 ‘陽氣衰者爲狂’에 대한 考察

- ‘陽氣’의 概念을 중심으로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 嘉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²

辛相元¹ · 金鍾鉉^{2*}

A Study on “Weakness of Yangqi causes Kuang(陽氣衰者爲狂)” in Jinkuiyaolue(金匱要略)

- Focused on the concept of ‘Yangqi’ -

Shin Sang-won¹ · Kim Jong-hyun²

¹Dep.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 : Korean medicine normally explained Kuang as a symptom arising from the exaltation caused by excessive yangqi. Therefore, a lot of arguments existed surrounding Jinkuiyaolue's explanation of Kuang as Yangqishuai. Therefore, the paper will review the existing opinions regarding this issue, and studied the original meaning of Jinkuiyaolue.

Method : First, the opinions of the historical doctors related to the clauses within Jinkuiyaolue are reviewed. Existing opinions are divided into categories, and their meanings and limitations are analyzed. Followed by this, Huangdineijing and later generations' annotations were studied to discover a way to distinguish Yin and Yang of Jinkuiyaolue's Yangqi within the Sinqi.

Result & Conclusion : The disease pathogen as explained within Jinkuiyaolue can be understood as an activity of Sinqi, and it's difficult to view it as the Yin and Yang in terms of blood qi. Therefore, Jinkuiyaolue refers to the deficiency in terms of the aspect of Yang within the activity of Sinqi. The Yangqi of this can be viewed as an activity of Shenming.

Key words : Kuang, Jinkuiyaolue, Yangqishuai, Shenming, Sinqi

I. 序 論

* Corresponding Author : Kim Jong-hy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Tel : +82-31-750-8724

E-mail : ultracoke82@gmail.com

Received(1 August 2017), Revised(12 August 2017),

Accepted(24 August 2017)

狂은 그 증상이 성내거나 소리를 지르고 높은 곳에 오르는 등 조급하고 항진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체로 陽盛, 實證의 범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金匱要略』의 邪狂 조문에서는 狂을 陽氣衰로 설명하여 일반적인 관점과 상충된다.

歷代 醫家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陽氣의 실체와 陽氣衰의 기전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해왔다. 그러나 그 의견들이 분분하여 혼란스러우며, 대개가 황제내경 및 난경과의 대립을 피하고 절충하는 데에 주력하여 그러한 견해들을 바탕으로 중경이 설명하고자 한 양기의 의미와 광의 병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문제를 다룬 현대 연구는 많지 않으며 소수의 中醫學界 연구자들이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劉聯群¹⁾, 王廣見²⁾, 何培進³⁾ 등은 『金匱要略』의 문장 중에서 ‘衰’字의 문자적 연원을 추적하여 ‘衰’와 ‘衰’, 『難經』의 ‘重’이 모두 ‘重疊’의 뜻을 가진다고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難經』과 『金匱要略』의 癲狂이 모두 實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吳顯昕은 『醫宗金鑑』을 근거로 ‘陽氣衰’가 아닌 ‘陰氣衰’의 경우에 狂에 이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⁴⁾ 丁德正은 최근의 연구⁵⁾에서 조금 다른 관점을 제출했는데, 그는 『金匱要略』의 해당 본문에 기술된 병증 전체가 현대 중의학의 ‘癲狂病’에서의 癲狂이나 臟躁類의 질환이라고 보아 ‘狂’ 자체의 의미를 달리 봄으로써 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陽氣衰者爲狂’ 조문을 둘러싼 견해들을 절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뿐, 양기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金匱要略』의 ‘陽氣衰者爲狂’에 나타난 ‘陽氣’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선 ‘陽氣衰者爲狂’ 조문의 前後 맥락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陽氣衰者爲狂’ 맥락에서의 ‘陽氣’에 대한 역대 醫家들의 해석들과 『黃帝內經』에 서술된 狂에 대한 논설들을 중

합적으로 고찰하여 陽氣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癲狂에 관련된 陰陽氣의 개념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여 이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狂을 비롯한 여러 정신질환에 대한 陰陽論적 이해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本論

1. ‘陽氣衰者爲狂’ 條文의 개괄

1) ‘陽氣衰者爲狂’ 條文의 내용

먼저 『金匱要略』에 기술된 해당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邪哭, 使魂魄不安者, 血氣少也, 血氣少者屬於心, 心氣虛者, 其人則畏, 合目欲眠, 夢遠行, 而精神離散, 魂魄妄行. 陰氣衰者爲癲, 陽氣衰者爲狂.⁶⁾

邪哭으로 魂魄이 안정되지 못하는 경우는 血氣가 적기 때문이니 血氣가 적은 것은 心病에 귀속된다. 心氣가 虛하면 환자가 두려워하며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만 하는데, 夢中에 멀리 나다니며 精神이 흩어지고 魂魄이 망령되어 행한다. 陰氣가 衰한 사람은 癲病을 앓고 陽氣가 衰한 사람은 狂病을 앓는다.

‘陽氣衰者爲狂’은 『金匱要略·五臟風寒積聚病脈證并治 第十一』의 ‘邪哭’ 관련 문장에 서술되어 있다. 「五臟風寒積聚病脈證并治 第十一」은 五臟風寒의 증후와 眞藏脈象, 구체적인 질병의 사례, 三焦 각 부위의 병증과 臟腑積聚의 脈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⁷⁾ 이 문장은 五臟 중 心臟의 병증을 논하는 부분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다.

邪哭은 귀신들린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우는 병증인데,⁸⁾ 본문에서는 魂魄不安, 畏, 合目欲眠, 夢遠

1) 劉聯群. “衰”應作“衰”. 四川中醫. 1985. p.26.

2) 王廣見. 講談“陰氣衰者爲癲, 陽氣衰者爲狂”. 國醫論壇. 1986. 3. p.6.

3) 何培進 등. “陰氣衰者爲癲, 陽氣衰者爲狂”新識. 中醫函授通訊. 1994. p.10~11.

4) 吳顯昕. 論《金匱要略》精神疾病的證治. 國醫論壇. 2000. 15(6). p.1.

5) 丁德正. 試釋“陰氣衰者爲癲, 陽氣衰者爲狂”. 遼寧中醫雜誌. 2014. 41(5). pp.903-904.

6) 何任 主編.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14.

7) 何任 主編.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10.

行, 精神離散, 魂魄妄行的 증후를 기술하였고, 이것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心氣虛를 지적하고 있다. 문장의 끝에서는 “陰氣衰者爲癲, 陽氣衰者爲狂”이라 하여 癲狂 발병의 원인을 陰氣와 陽氣의 衰로 대별하였다. 이러한 전체 조문의 맥락에서 “陽氣衰者爲狂”을 살펴보고자 한다.

仲景은 “邪哭, 使魂魄不安者, 血氣少也, 血氣少者屬於心.”이라 하여 邪哭과 魂魄不安의 원인으로 ‘血氣少’를 지적하였고 이것이 心에 귀속된다[屬心]고 하였다. ‘心에 귀속된다’라고 말할 것은 血氣少만으로는 이 증후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으며, 五臟 중에 어느 것에 귀속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원인의 소재를 心에게로 돌린 것이다. 이렇게 결론내린 까닭은 이 병증의 특성에 있다. 해당 증후들은 形體 차원에서의 증상이 아니라 특유의 神志 異常을 위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血氣少라는 氣血 차원의 원인만으로는 특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며 정신적 차원의 주재자인 ‘心’이 도입됨으로써 비로소 설명이 가능해진다.

仲景은 이를 ‘心氣虛’로 종합하여 ‘畏, 合目欲眠, 夢遠行’과 ‘精神離散, 魂魄妄行’의 증후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언급한다. 心氣는 앞서 언급한 氣血 차원에서의 虛衰를 의미하는 血氣少가 心의 개념과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心의 작용과 연관된 氣血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⁸⁾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心氣’라는 표현에는 神志 이상을 표현하기 위한 정신의 주재자로서의 心의 개념과 氣血의 개념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문의 마지막에서 ‘陰氣衰’, ‘陽氣衰’의 편향에 따라 ‘癲’과 ‘狂’이 각각 발생한다고 언급하여 陰陽氣를 통해 癲狂을 설명하였다. 본문의 맥락에 따르면 ‘陰氣衰’와 ‘陽氣衰’는 ‘心氣虛’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여기에서의 ‘陰氣’와

‘陽氣’는 전신을 운행하는 陰陽氣 중에서도 특히 ‘心氣’의 운동에서 나타나는 陰과 陽의 면모에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의 서두에서 제시된 ‘血氣少’는 이 병증의 神志적 특징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心氣虛’는 이 병증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직접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文尾의 ‘陰氣衰’와 ‘陽氣衰’는 자연스럽게 心氣虛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러므로 여기의 陰氣와 陽氣는 心氣가 관련되어 있는 心의 정신적 작용의 차원에 역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陽氣 개념 해석에 대한 문제제기

본 조문의 ‘陰氣’와 ‘陽氣’의 개념은 癲狂의 실제 병증 발현과 관련지어 구체적인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다. 특히 狂은 일반적으로 陽盛, 熱證 및 實證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본문에서 狂의 원인으로 지목한 ‘陽氣衰’가 가리키는 병리 기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때의 ‘陽氣’의 의미는 무엇인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癲狂을 陰陽 개념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金匱要略』에 앞서 『難經』에 이미 나타난다. 『難經·二十難』에서는 “重陽者狂, 重陰者癲¹¹⁾”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서술은 표면적으로 『金匱要略』의 “陰氣衰者爲癲, 陽氣衰者爲狂”과 相反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므로 두 가지 주요 醫經에 나타난 상반된 언급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역대 醫家들의 해석 과정에서 주요한 목표가 되어왔다.

이러한 까닭으로 “陰氣衰者爲癲, 陽氣衰者爲狂”은 『金匱要略』을 논했던 여러 醫家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다양한 방면의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歷代로 여러 醫家들이 이에 대해 논한 견해를 먼저 참조하여 본문의 陰陽氣의 실체와 관련된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되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8) 吳謙 등. 醫宗金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6. p.322.

『醫宗金鑑』 “邪哭, 謂心傷之人, 無故而哭也.” 『金匱要略心典』 “邪哭者, 悲傷哭泣, 如邪所憑”, 『高注金匱要略』 “無因而哭”

9) 이 문장은 ‘五臟風寒’을 서술한 맥락에서 존재하고 있다.

10) 문맥상 心氣와 대별되는 心氣가 아니라 氣血을 통칭한 것으로 독해된다.

11) 전국한의학대학교 원전학교실 編. 難經. 서울. 법민문화사. 2010. p.59.

2. '陽氣衰者爲狂'에 대한 歷代 醫家들의 견해

“陰氣衰者爲癲，陽氣衰者爲狂”에 대한 醫家들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각 醫家들이 陰陽氣의 정체를 설명한 방식 속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醫家들이 서술한 陰陽氣의 실체를 중심으로 관련 언급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문에 대한 견해가 나타나 있는 『備急千金要方』, 徐彬의 『金匱要畧論註』, 程林的 『金匱要畧直解』, 周揚俊의 『金匱玉函經二注』, 吳謙의 『醫宗金鑑』, 尤怡의 『金匱要畧心典』, 黃元御의 『金匱懸解』, 陳修園의 『金匱要畧淺注』, 高學山の 『高注金匱要畧』, 曹穎甫의 『金匱發微』, 胡希恕의 『胡希恕金匱要畧講義』를 대상으로 살펴 보았다.

1)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7c 중엽)¹²⁾

…… 五臟者，魂魄宅捨，精神之根據托也。魂魄飛揚者，其五臟空虛也，即邪神居之，神靈所使鬼而下之，脈短而微，其臟不足，則魂魄不安。魂屬於肝，魄屬於肺。肺主津液，即爲涕泣出，肺氣衰者，即泣出。肝氣衰者，魂則不安，肝主善怒，其聲呼。(備急千金要方·心臟脈論第一)¹³⁾

『備急千金要方』(이하 『千金』)에서는 서두에 五臟을 먼저 언급하였는데 臟이 精氣를 갈무리하며 神이 머무는 것을 담당하므로 이러한 바탕에서 병증을 이해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이어서 설명하기로 魂魄이 飛揚하여 五臟空虛하면 邪神이 들어와 居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魂魄이 不安하면 肺氣衰한 경우에는 ‘泣出’하는 癲病이 되고 肝氣衰한 경우에는 ‘善怒’하고 ‘呼’하는 狂病이 된다고 보았다. 즉, 여기에서는 陽氣를 肝의 魂으로 본 것이다.

2) 徐彬의 『金匱要畧論註』(1671)

註曰，前心傷一段言，心因客邪而致傷，傷則證脈不同于初中也。此又就人之血氣虛，因心氣不足而感邪者，別言之，謂邪入于身，當形體爲病，何遂魂魄不安。乃有邪一入，即便魂魄不安，此因血氣少，其少之故，又屬於心之虛，欲人遇此證者，當以安神補心爲主也。合目夢遠，魂魄妄行，乃狀其不安之象，精神離散，則又註妄行之本也。心爲君主之官，一失其統馭，而陰虛者，邪先乘陰則顛，陽虛者，邪先乘陽則狂。顛狂雖不同，心失主宰則一也。(金匱要畧論註)¹⁴⁾

『金匱要畧論註』(이하 『論註』)에서는 陰陽을 癲狂의 邪氣가 침범한 곳의 氣로 보았다. 이는 “邪之所湊，其氣必虛，陰虛者，陽必湊之”의 뜻을 해석에 도입한 것이다. 즉, 陰氣가 허하면 邪氣가 먼저 陰分에 들어가 癲이 되며, 陽氣가 허하면 邪氣가 먼저 陽分에 들어가 狂이 된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는 “邪入于陽則狂，邪入于陰則顛”으로 설명한 尤怡의 『心典』의 견해와 매우 유사하다.

3) 程林的 『金匱要畧直解』(1673)

…… 內經言¹⁵⁾重陽者狂，重陰者癲，此陰氣衰者爲癲，陽氣衰者爲狂，似與彼異。然經亦有上實下虛，爲厥癲疾，陽重脫者易狂，則知陰陽俱虛，皆可爲癲爲狂也。(金匱要畧直解)¹⁶⁾

『金匱要畧直解』(이하 『直解』)도 『難經』의 문장과 비교하였는데, 『內經』의 병리 기술을 인용해 절충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內經』에서 “上實下虛，爲厥癲疾”，“陽重脫者易狂”이라고 한 것을 통해 『難經』의 언급과 같은 實證의 癲狂만이 아니라 “陰陽俱虛”한 虛證의 癲狂도 존재한다고 함으로써 『金匱要

12) 각 서적은 저작 연도 순으로 배치하였으며, 이하의 저작 연도 표기는 東洋醫學大辭典에 수록된 각 서적 항목의 내용을 따랐다.(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事典,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9.)

13) 李景榮,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458.

14) 徐彬 注. 金匱要畧論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p.86.

15) “內經言”은 『金鑑』의 예와 마찬가지로 誤謬인 것으로 보인다.

16)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便攜硬碟模式]. Ver.2.0.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16.

略』과 『難經』 문장이 서로 다른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했다.

4) 周揚俊의 『金匱玉函經二注』(1687)

〔衍義〕神之所任物而不亂者，由氣血維持而養之以靜也。若氣血衰少，則神失所養而不寧，……所言癲狂，非陰陽上下相并之病，乃猶持心臟，分氣血，陰陽相傾也。蓋陰在內，爲陽之守，陽在外，爲陰之衛，若陰氣衰，陽氣并于內，神亦入于陰，故癲，癲病者，神與聲皆閉藏而不發，若陽氣衰，陰氣并于外，神亦出于陽，故狂，狂病者，神與聲皆散亂而妄動也。(金匱玉函經二注)¹⁷⁾

『金匱玉函經二注』(이하 ‘二注’)에서는 “陰在內，爲陽之守，陽在外，爲陰之衛”라 설명한 『素問陰陽應象大論』¹⁸⁾의 언급을 바탕으로，陰氣衰하면 陽氣가 안으로 몰리고 陽氣衰하면 陰氣가 밖으로 몰리게 된다고 보았다. 이때 神은 ‘并’의 방향에 따라 內外로 이동하여 癲狂의 병증이 발생시키는데，神이 처한 상황에 따라 ‘神與聲皆閉藏而不發’，‘神與聲皆散亂而妄動’과 같은 증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5) 尤怡의 『金匱要略心典』(1729)

邪哭者，悲傷哭泣，如邪所憑。此其標有稠痰濁火之殊，而其本則皆心虛而血氣少也，于是寤寐恐怖。精神不守，魂魄不居，爲顛爲狂，勢有必至者矣。經云，邪入于陽則狂，邪入于陰則顛，此云陰氣衰者爲顛，陽氣衰者爲狂，蓋必正氣虛而後邪氣入，經言其爲病之故，此言其致病之原也。(金匱要略心典)¹⁹⁾

『金匱要略心典』(이하 ‘心典’)에서는 ‘陽氣衰者爲狂’을 “邪入于陽則狂。邪入于陰則顛”²⁰⁾이라고 한 내

용과 비교하였는데，이 문장은 邪氣가 들어와 발병하는 과정[爲病之故]을 위주로 설명한 것이며 『金匱要略』의 문장은 正氣가 虛한 것이 邪氣가 들어올 수 있는 근원[致病之原]임을 위주로 말한 것이라고 하여 동일한 현상의 양면을 설명한 것으로 보았다. 즉，陰分과 陽分の 氣가 衰弱하여 邪氣가 침범함으로써 癲狂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 논지는 “陰虛者，邪先乘陰則顛，陽虛者，邪先乘陽則狂”라고 한 『論註』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병리적 원인의 근본이 ‘稠痰濁火’가 아니라 ‘心虛’와 ‘血氣少’에 있다고 하여 正氣虛를 좀 더 중시하는 견해를 표명했다.

6) 吳謙의 『醫宗金鑑』(1742)

〔按〕陰氣衰者爲癲之癲字，當是狂字，陽氣衰者爲狂之狂字，當是癲字。內經曰²¹⁾，重陰者癲，重陽者狂。必是傳寫之訛。

〔注〕……心之血，陰也，陰過衰則陽盛，陽盛則爲狂也。心之氣，陽也，陽過衰則陰盛，陰盛則病癲也。(醫宗金鑑)²²⁾

吳謙은 『醫宗金鑑』(이하 ‘金鑑’)에서 『難經』의 “重陰者癲，重陽者狂”을 기준으로 삼아 癲狂의 陰陽을 辨別하였다. ‘重陰’과 ‘重陽’을 陰陽이 거듭되어 나타나는 寒熱의 속성으로 인식하고 이를 그대로 『金匱要略』에 적용하였다. 『金匱要略』의 문장에 나타난 ‘血氣少’를 心血과 心氣로 나누고，陰인 心血의 過衰는 陽盛이 되어 狂을，陽인 心氣의 過衰는 陰盛이 되어 癲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陰氣衰하면 狂이 되고 陽氣衰하면 癲이 되므로 『金匱要略』과 일치하지 않는데，이것을 傳寫之誤로 보고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17) 周揚俊 補註. 金匱玉函經二注. 香港. 商務印書館. 1971. pp.7~8(卷十一).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4.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陰在內，陽之守也，陽在外，陰之使也.”라고 하여 조금 다르다.

19) 尤在涇 注. 金匱要略心典 譯解. 과주. 집문당. 2008. p.190.

20) 『素問宣明五氣篇』에는 “五邪所亂，邪入於陽則狂，邪入於陰則癲，搏陽則爲癲疾，搏陰則爲瘖”이라고 되어 있고 『靈樞九鍼論』에는 “五邪，邪入於陽，則爲狂，邪入於陰，則爲血痺，邪入於陽，轉則爲癲疾，邪入於陰，轉則爲瘖”이라 되어 있어 문장이 다르다. 『諸病源候論』에 비로소 같은 문장이 나타나는데，이렇게 변형된 이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21) “內經曰”은 “難經曰”의 誤謬인 것으로 보인다.

22) 吳謙 등. 醫宗金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6. p.322.

7) 黃元御의 『金匱懸解』(1754)

靈樞·本神, 心藏脈, 脈捨神, 腎藏精, 精捨誌, 肝藏血, 血捨魂, 肺藏氣, 氣捨魄, …… 血氣皆原于火, 故血氣少者, 由于心火之虛也. …… 精魄, 陰也, 陰氣衰者, 則誌迷而爲顛. 神魂, 陽也, 陽氣衰者, 則神亂而爲狂.

難經, 重陰則顛, 重陽則狂, 言與此殊, 而實則同也. 蓋濁降則爲陰, 陰癘盛則癘溫, 清升則爲陽, 陽癘盛則癘涼, 故陽降而爲濁陰, 陰升而化清陽. 陽清則化神, 陰濁則化精, 而神根于精, 坎之陽也, 水陰而抱陽, 故精溫而不顛, 精根于神, 離之陰也, 火陽而舍陰, 故神清而不狂. 狂者君火不降, 雖上熱如爐, 實陽虛而非陽盛也, 顛者癸水不升, 雖下寒如冰, 實陰虛而非陰盛也.(金匱懸解)²³⁾

『金匱懸解』(이하 ‘懸解’)에서는 『靈樞·本神』의 神에 대한 개념을 인용하여 神志 증상이 나타나는 癡狂을 해석하고자 한 것이다. 陰陽을 “精魄, 陰也”, “神魂, 陽也”와 같이 神志 활동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癡狂을 “陰氣衰者, 則誌迷而爲顛”, “陽氣衰者, 則神亂而爲狂”과 같이 구분했다.

『難經』說과의 차이에 대해서 실제로는 같은 의미라고 하였다. 狂은 “陰升而化清陽”의 작용이 잘 되지 못한 것으로 길으로는 ‘上熱’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陽虛’이며, 顛은 ‘陽降而爲濁陰’이 잘 되지 못한 것으로 길으로는 ‘下寒’이지만 실제로는 ‘陰虛’라 설명하였다.

『懸解』의 특징은 “精魄, 陰也 …… 神魂, 陽也”, “陽清則化神, 陰濁則化精”과 같이 精神적 작용을 陰陽氣의 실제 개념으로 본 것이며, 또한 癡狂이 실제 기전이 虛證이라는 것을 강조한 데에 있다.

8) 陳修園의 『金匱要略淺注』(1803)

心主失其統禦之權, 爲顛爲狂, 勢所必至者, 然顛狂亦有陰陽之分.

其與經文重陰者顛, 重陽者狂之旨, 似若未

23) 黃元御 撰. 黃元御醫書十一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314.

合, 然彼以寒熱分陰陽. 此以氣血分陰陽, 後之覽者, 當會通于言外.(金匱要略淺注)²⁴⁾

『金匱要略淺注』(이하 ‘淺注’)는 癡狂이 心이 ‘統禦之權’을 잃어 나타나는 결과이며, 陰陽의 分別이 있어 달리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難經』과는 상호 부합하지 않는 듯 하지만 『難經』은 寒熱로 陰陽을 나눈 것이고 『金匱要略』은 氣血로 陰陽을 나눈 것으로 회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金匱要略』의 陰陽을 氣血로 해석한 한편으로 『難經』의 重陰, 重陽에 대해서도 寒熱로 보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것인데, 종합하면 氣衰가 熱證인 狂이 되고 血衰가 寒證인 顛이 된다고 본 것이다.

9) 高學山の 『高注金匱要略』(19c 초)

…… 陰氣兩句, 又從正虛, 而推言客氣之上并也. 癡者, 顛倒, 狂者, 狂悖之義, 但癡屬陰病, 陰氣慘毒, 狂屬陽病, 陽氣高邁. 蓋心中之氣血偏衰, 自爲病者, 如上文所云, 若下焦肝腎之陰陽, 各因其類而并之, 則神君遜位而出. 故陰氣衰者爲癡, 陽氣衰者爲狂矣. 然亦有陰陽互并者, 陰衰見陽并, 則大笑大樂, 好登高遠行, 而日夜不寐, 陽衰見陰并, 則大驚大畏, 好深藏畏避, 而終不自安, 此又癡狂之變症, 不可不知者也. 其互并而不病癡狂, 即吐衄驚悸中之所論者, 是也.(高注金匱要略)²⁵⁾

『高注金匱要略』(이하 ‘高注’)에서는 ‘心中之氣血’의 偏衰에 따라 肝腎의 陰陽이 同類를 쫓아 몰리면서 癡狂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즉, 血이 衰하면 下焦 腎의 陰氣가, 氣가 衰하면 下焦 肝의 陽氣가 心으로 몰려 神이 자리를 내놓고 나가게 됨으로써 癡狂이 된다고 하였다.

이 견해는 心의 氣와 血을 陰陽의 실제로 보았는

24) 林慧光 主編. 陳修園醫學全書(I).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34.

25)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便攜硬碟模式]. Ver.2.0.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16.

데, 이것이 衰함에 따라 心의 虛를 틈타 下焦의 實한 客氣가 心으로 들어와 癲狂이 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10) 曹穎甫의 『金匱發微』(1936)

表邪乘裏，必從其虛，…… 譬之釜下薪火，將滅煙勝而煙飛，將一散而不要收也。此證正虛爲重，外邪爲輕，治此者。朱砂以鎮之，棗仁以斂之，熟地潞參當歸以補之，而又加遠志以化痰，半夏以降逆，秫米以和胃，或者十活四五，否則積之既久，雖不即死，爲癲、爲狂，將成痼疾矣。(太陰無陽氣，則脾藏聚濕成疾，痰蒙心竅是爲癲，陽明無陰氣，則腸胃積燥生熱，熱犯心包是爲狂。)(金匱發微)²⁶⁾

曹穎甫는 『金匱發微』(이하 ‘發微’)에서 正氣虛를 이 병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으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매우 상세히 표명하였다. 이 正氣虛의 상황을 ‘釜下薪火’에 비유했는데, 장작불인 下焦 陽氣의 虛衰가 솔인 脾胃의 虛衰를 야기함을 말한 것이다.

“陰氣衰者爲狂，陽氣衰者爲癲”을 이러한 正氣虛의 상황으로 해석하여, 陰氣衰는 太陰에 陽氣가 없어 발생하는 脾의 濕痰이 心竅를 막아 癲이 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陽氣衰는 陽明에 陰氣가 없어 발생하는 腸胃의 燥熱이 心包를 범하여 狂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았다. 즉, 陰陽을 太陰陽明, 脾陽과 胃陰으로 본 것이다.

11) 胡希恕의 『胡希恕金匱要略講義』(2008)

음기가 쇠하면 ‘癲’이 되고 양기가 쇠하면 ‘狂’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음기”란 血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血이 쇠하여 심장병이 발생하면 “癲病”이 된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슬퍼하고 정신이 불안정한 것을 옛사람들은 ‘癲’이라 하였습니다. 血이 허하기 때문이고, 실령 열이 있다 하

더라도 허열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양기”란 津액을 의미합니다. 津액은 기분에 속하는 거죠. 津액은 허해진 탓에 대변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양명병에서는 ‘狂’이 나타날 수 있죠. 도락승기탕이나 저당탕을 쓰게 되는 리실의 증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胡希恕金匱要略講義)²⁷⁾

胡希恕는 陰陽에 대해 陰은 血을, 陽은 津液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後代에 “陰은 곧 寒이고 陽은 곧 熱”로 도식화하여 보는 관점, 즉 외현되는 양상에 기반한 陰陽 인식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陰陽氣의 실체를 형기적인 개념(血, 津液)에 기반을 두고 정의하여, 陰陽을 통해 癲狂과 같은 정신적 증후를 설명하기에는 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黃帝內經』의 狂에 관한 논설

『金匱要略』은 의학사 상으로 상당히 초기에 이루어진 저작으로서, 이보다 앞선 시기의 저작은 『黃帝內經』과 『難經』 정도가 있을 뿐이다. 『金匱要略』에 수록된 ‘陽氣衰者爲狂’도 초기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당대의 한의학 이론의 맥락을 아울러 고찰하여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醫家들의 견해에서도 『黃帝內經』과 『難經』의 언급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陽氣衰者爲狂’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간 경우가 수차례 나타나 있다.

『黃帝內經』에는 『難經』, 『金匱要略』에 비해서 狂에 대한 보다 풍부한 논설들이 서술되어 있어, 『黃帝內經』의 狂 서술의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狂에 대한 관점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金匱要略』의 내용을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黃帝內經』에 나타난 狂에 관련된 논설들을 살펴볼 것인데, 특히 『金匱要略』 조문과의 비교를 위하여 陰陽氣를 통해 狂을 설명한 논설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1) 陽氣가 盛하여 발생한 狂

26) 曹穎甫 著. 曹氏傷寒金匱發微合刊.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p.106~107.

27) 후시수 지음, 은석민 옮김. 胡希恕金匱要略講義. 파주. 물고기출. 2017. p.226.

岐伯曰, 陰者, 藏精而起亟也, 陽者, 衛外而爲固也. 陰不勝其陽, 則脈流薄疾, 并乃狂. (素問·生氣通天論)²⁸⁾

일반적으로 狂은 陽氣盛의 기전으로 설명되는데, 대표적으로 『素問·生氣通天論』에 이러한 양상의 狂이 설명되고 있다. 陰이 陽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에서 ‘脈流薄疾’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陽盛의 상태를 알 수 있다. 王冰은 “并, 謂盛實也”²⁹⁾이라고 하였고 張介賓도 “陰不勝陽則陽邪盛, 故當爲陽脈陽證之外見者, 如此.”³⁰⁾라고 하여 공히 이 증후를 陽氣가 盛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문장의 서두에서 ‘衛外’라고 하였듯이 陽氣는 外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보았으므로, ‘陰不勝其陽’하면 마땅히 陽氣가 外인 陽分에서 盛하게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王冰은 “陽并於四支則狂”, 張介賓은 “并者, 陽邪入於陽分, 謂重陽也.”라고 하여 역시 陽盛이 특히 陽分인 表部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2) 邪氣가 陽分에 침입하여 발생한 狂

五邪所亂, 邪入於陽則狂, 邪入於陰則瘖, 搏陽則爲癲疾, 搏陰則爲瘖, 陽入之陰則靜, 陰出之陽則怒, 是謂五亂. (素問·宣明五氣)³¹⁾

五邪, 邪入於陽則爲狂, 邪入於陰則爲血瘖, 邪入於陽, 轉則爲癲疾, 邪入於陰, 轉則爲瘖, 陽入之於陰, 病靜, 陰出之於陽, 病喜怒. (靈樞·九鍼論)³²⁾

『素問·宣明五氣』와 『靈樞·九鍼論』에는 邪氣가 陰分과 陽分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병증들에 대한 설명이 대동소이한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여 王冰은 “邪居於陽脈之中, 則四支熱盛, 故爲狂.”라고 하였고 張介賓은 “邪入陽分, 則爲陽邪, 邪熱熾盛, 故病爲狂.”라고 하였는데, 모두 陽脈, 四肢, 陽分 등에 陽盛한 증후로 설명하고 있다.

3) 陽氣를 脫하게 하여 발생한 狂

帝曰, 善. 有病膺腫頸痛胸滿腹脹, 此爲何病, 何以得之. 岐伯曰, 名厥逆. 帝曰, 治之奈何. 岐伯曰, 灸之則瘖, 石之則狂, 須其氣并, 乃可治也. 帝曰, 何以然. 岐伯曰, 陽氣重上, 有餘於上, 灸之則陽氣入陰, 入則瘖, 石之則陽氣虛, 虛則狂, 須其氣并而治之, 可使全也. (素問·腹中論)³³⁾

『素問·腹中論』에서는 膺腫, 頸痛, 胸滿, 腹脹 등의 증후가 나타나는 厥逆 병증의 치법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에서 이 병증에 ‘石’을 시행하면 陽氣虛하게 되어 狂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厥逆은 氣가 상부로 逆上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陽氣重上, 有餘於上”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에 부합한다. 이는 陽氣가 實한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는 下部는 虛한 상태에서 上部로 陽氣가 몰리게 된 것이다.³⁴⁾

王冰은 ‘石’에 대하여 “石, 謂以石鍼開破之.”³⁵⁾라고 하여 石鍼으로 열어 깨뜨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石鍼은 表部에 작용하여 陽分의 陽氣를 瀉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본 것이다.

厥逆의 상태에서 ‘石’을 시행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虛한 상태에서 陽分에 몰려있던 陽氣마저 瀉하게 됨으로써 내부가 虛脫한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하여 狂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³⁶⁾

損不足而益有餘, 是謂甚病, 病益甚取五脈者死, 取三脈者恒, 奪陰者死, 奪陽者狂, 鍼害畢矣. (靈

2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6.

29)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p.17

30)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488.

3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92.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33.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50.

34) 張介賓은 이에 대해 “陽并於上, 其下必虛”라고 하였다.

35)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p.195.

36)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p.195. “石之則陽氣出, 陽氣出則內不足, 故狂.”

樞·九鍼十二原³⁷⁾

『靈樞·九鍼十二原』에서는 ‘奪陽者狂’이라고 하였다. 이는 刺針 과정에서의 誤治인 ‘鍼害’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온 것으로 ‘奪陰’, ‘奪陽’ 등은 모두 ‘鍼害’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素問·腹中論』의 ‘石’과 유사한 것으로 刺針시의 誤治임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였다.

이 문장에 나타난 증후들은 暈, 死³⁸⁾, 狂 등인데, 이들은 대체로 정신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는 刺針시의 誤治로 인하여 정신적인 작용에 관여하는 氣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太陽之人, 多陽而少陰, 必謹調之, 無脫其陰, 而瀉其陽, 陽重脫者, 易狂, 陰陽皆脫者, 暴死不知人也. (靈樞·通天)³⁹⁾

『靈樞·通天』에서는 四象人의 陰陽을 말하면서 치료 상의 주의점을 함께 서술하고 있는데, 太陽人에 대해 서술한 내용에서 狂에 대한 언급이 발견된다. 太陽人은 본래 ‘多陽而少陰’한데 이에 대하여 ‘瀉其陽’하여 陽을 거둬 脫하게 하면 狂이 발생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본래 陽氣가 많지만 陰氣가 적은 사람은 陽에 뿌리가 없는 격이어서 瀉法을 쓰면 쉽게 狂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⁴⁰⁾ 이러한 ‘多陽而少陰’의 상황은 앞서 厥逆의 상황에서 瀉法을 써 狂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한 『素問·腹中論』의 상태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刺針시의 誤治가 분명하므로 『靈樞·九鍼十二原』의 원인과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세 가지 사례에서 모두 瀉法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瀉法이 狂을 비롯한 暈, 暴死不知人과 같은 정신적인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여기의 사례에서 나타난 瀉法은 그 영향력이 정신적인 차원에 미치고 있으므로 매우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4) 小結

여기에서 나타난 狂은 공통적으로 신체의 表部, 上部, 四肢 등 陽分에서의 요인 때문에 발생하였다. 그래서 『黃帝內經』에서 狂을 공통적으로 陽分의 병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陽氣가 盛하여 발생한 狂, 邪氣가 陽分에 침입하여 발생한 狂의 두 가지 경우에서는 서로 간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陽氣가 盛하여 발생한 狂은 陽分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注家들이 밝힌 바 있으며, 邪氣가 陽分에 침입하여 발생한 狂은 陽分에서 邪熱이 盛하는 등 陽盛의 證으로 인식 되었으므로, 두 가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陽氣를 脫하게 하여 발생한 狂은 앞의 두 경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데, 刺針의 오류라는 발병의 과정이나 이것이 야기한 情志 異常의 양상을 볼 때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狂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사례들은 針刺 과정에서 瀉法의 적용으로 인하여 陽氣가 급격히 脫하면서 나타나는 狂이다. 그런데 陽分이 盛하여 狂이 발생한 나머지 두 경우와 달리 陽分이 脫하였는데도 狂이 발생하였으니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瀉法의 誤用이 일반적인 氣血 수준에서의 陽氣의 작용에 부작용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靈樞·九鍼十二原』에서 나타나는 사례와 같이 정신적 면에서 부작용을 야기한 것이니 이 또한 일반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해보면 陽氣가 盛하여 발생한 狂, 邪氣가 陽分에 침입하여 발생한 狂은 유사한 부류로 이들이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陽氣를 脫하게 하여 발생한 狂은 다소 특수한 사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따라 『金匱要略』 조문을 『黃帝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2.

38) 여기에서의 死는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것을 말한다. 『靈樞·通天』에 나타난 ‘暴死不知人’과 같다고 볼 수 있다.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02.

40)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155. “然陰不足者陽亦無根, 若寫之太過則陽氣重脫, 而脫陽者狂.”

內經』을 비교해 보면, 『黃帝內經』의 狂에 대한 일반적인 논설에서는 ‘陽氣衰者爲狂’의 陽氣衰와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III. 考察

1. 『黃帝內經』의 관점을 따른 歷代 醫家들의 견해에 대한 재검토

『黃帝內經』의 狂과 ‘陽氣衰者爲狂’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앞서 『金匱要略』의 注解들을 살펴본 바로는 ‘陽氣衰’의 의미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으므로, 그러한 설명들 가운데 『黃帝內經』의 내용과 서로 통하는 경우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黃帝內經』과의 관계 속에서 본문을 해석하려 시도한 견해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歷代 醫家들의 견해들 중에서 먼저 陽氣에 대한 『黃帝內經』의 의학적 관점을 수용해 ‘陽氣衰者爲狂’ 조문을 해석하고 있는 사례를 선별하고, 이들 중에서 참조할만한 견해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앞서 ‘陽氣衰者爲狂’에 관련된 11종의 견해 중 『黃帝內經』의 관점과 연관지어 조문을 해석한 견해는 徐彬의 『論註』, 尤怡의 『心典』, 周揚俊의 『二注』, 黃元御의 『懸解』와 程林的 『直解』의 5종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直解』는 『黃帝內經』의 기본적 관점을 따르고 있지만 ‘實狂’과 다른 ‘虛狂’의 존재를 언급한 것일 뿐 분명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를 제외한 4종을 대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1) 『黃帝內經』의 일반적 관점을 따라 해석한 견해

‘陽氣衰者爲狂’를 설명한 문헌 중 徐彬의 『論註』, 尤怡의 『心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서로 매우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陽氣衰者爲狂’을 陽分の氣가 衰弱하여 이를 틈타 邪氣가 침입하여 狂이 발생하는 기전으로 설명한 견해이다. 이는 『黃帝內經』에서 제시한 가장 일반적인 狂인 ‘陽分에 陽氣가 盛하여 발생하는 狂’의 분류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 맥락에서 나타나는 陽氣의 개념도 『黃帝內經』의 일반적인 관점을 따르고 있다.

2) ‘神’의 관점을 새로이 제기한 견해

한편, 周揚俊의 『二注』, 黃元御의 『懸解』는 『黃帝內經』의 일반적인 견해를 따르고 있으면서도, 神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狂을 설명하였다.

周揚俊은 『二注』에서 陰陽氣가 내외 陰陽分로 ‘并’하는 것을 언급한 것은 일반적인 견해와 유사하지만, ‘神與聲皆散亂而妄動’과 같이 狂의 증후가 神이 외부로 이동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狂이 일반적인 陰陽氣의 수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神이 개입하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견해이다.

黃元御의 『懸解』에서는 『靈樞本神』의 이론을 도입하여 설명했는데, “神魂, 陽也”라고 하여 정신 작용의 주체인 ‘神魂’의 개념을 제시하고 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만약 陽氣衰하면 ‘神魂’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神亂’하게 되고 狂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신 작용에 관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陽氣의 개념에 관련지은 것이다. 또 “狂者君火不降, 雖上熱如爐, 實陽虛而非陽盛也,”와 같이 狂이 실제로는 陽氣의 虛에 의해 발생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으니, 전체적으로 『金匱要略』의 ‘陽氣衰者爲狂’의 맥락에 가장 가까운 설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周揚俊의 『二注』, 黃元御의 『懸解』의 견해는 앞의 두 견해에 비하여 ‘陽氣衰者爲狂’의 맥락에 부합하므로 ‘陽氣’의 개념을 『黃帝內經』의 관점을 통해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陽氣의 활동과 정신 작용의 관계

앞서 진행했던 ‘陽氣衰者爲狂’의 분석 결과 해당 조문의 증상 및 癲狂의 의미는 血氣의 부족뿐 아니라 정신적 측면의 의미가 포함된 心氣의 부족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黃元御의 『懸解』의 견해는 陽氣衰를 설명함과 동시에 神의 개념을 포괄함으로써 『金匱要略』 조문의 의미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단, 黃元御가 ‘神魂’을 陽으로 본 것은 陽氣의 개념에 정신적인 작용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만, 이는 ‘神魂’이라는 『靈樞本神』에 서술되는 정신 작용의 개념들을 陰陽으로 귀류시킨 것

일 따름이고 ‘陽氣衰者爲狂’의 陽氣의 개념 자체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신 작용의 의미에 관련된 陽氣의 개념이 『黃帝內經』의 陽氣에 대한 논설에서도 나타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素問·生氣通天論』에서는 “蒼天之氣，清淨則志意治，順之則陽氣固.”라 했는데,⁴¹⁾ ‘蒼天之氣’는 天氣로서 하늘의 陽氣의 작용을 의미하며, ‘清淨’은 하늘의 陽氣가 맑은 상태를 말한다. 즉, 하늘 陽氣의 작용이 맑은 상태에 있다면 사람의 志意가 자연스럽게 다스려지니, 이를 따르면 사람의 陽氣가 固密해 진다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陽氣’는 인간의 근본적인 생명력을 의미하는 ‘生氣’의 의미로 인식된다. 이 ‘生氣’는 인간의 근본적인 생명력 자체를 의미하는 특수한 개념임에도 ‘陽’의 성격으로써 표현되는데, 이는 生氣가 일반적인 陽氣와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生氣’는 ‘陽’으로서의 특징을 공유하여 陽氣라고 불리면서도 일반적인 陽氣와 구별되는 가장 높은 차원의 陽氣이다. 이는 陽氣의 작용이 지극히 높은 차원에서 일반적인 차원까지 다양한 層次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편에서 “陽氣者，精則養神，柔則養筋.”⁴²⁾이라 하였는데, 하나의 陽氣가 질적으로 다양한 차원의 작용을 수행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張景岳은 筋을 원활히 움직이도록 하는 ‘養筋’이 陽氣의 ‘柔和’한 작용이라면, 인간의 神이 자유롭게 발휘되도록 하는 ‘養神’은 陽氣의 ‘精明’한 작용이라고 했는데,⁴³⁾ 질적으로 相異한 두 가지 차원에 각기 다른 두 종류의 氣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陽氣가 상황에 따라 ‘柔和’, ‘精明’ 등으로 활동 양상을 달리하여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것이다. 즉 陽氣는 筋의 운동과 같은 육체적 차원에 작용할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神의 활동과 같은 정신적 차원에도 관련되어 그 작

용이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3. ‘陽氣衰者爲狂’에서의 陽氣衰의 의미

“陽氣者，精則養神，柔則養筋.”의 陽氣는 보편적인 인체의 陽氣인데 상황에 따라 ‘精明’한 활동 양상을 나타내며 정신적인 작용에 관여하게 된다. 만약 陽氣가 정신적인 작용에 관여하는 활동이 衰弱해 진다면 결과적으로 정신적인 이상 증후를 야기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앞의 “陽氣者，精則養神”을 통해 정신적 작용에 관련된 陽氣가 衰하게 되는 상황을 추론해본다면 神明이 어지럽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張景岳은 『素問·生氣通天論』의 해당 부분에 대한 注解에서 “陽氣去則神明亂”⁴⁴⁾이라고 설명했으며, 『素問·四時刺逆從論』에서 陽氣가 끊어져 ‘善忘’의 증후가 나타나는 상황⁴⁵⁾에 대해서도 “陽氣者，精則養神”을 근거로 삼아 “陽虛하면 神이 衰하게 되어 ‘善忘’의 증후가 나타날 수 있다”⁴⁶⁾고 설명했다. 즉 陽氣를 神의 작용과 관련지어 정신적인 증후를 설명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陽氣衰者爲狂’의 의미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陽氣衰者爲狂’에서 언급한 ‘陽氣衰’란 『黃帝內經』에서의 일반적인 陽氣의 다양한 층차의 활동 중에서 인체의 정신적인 작용에 관여하는 陽氣의 활동이 衰弱해진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黃帝內經』에 서술된 狂에 대한 논설에서 이러한 陽氣衰가 적용될 수 있는 예를 찾아 본다면, 상당히 특수한 경우로 언급된 陽氣를 脫하여 발생한 狂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刺針의 誤治로 脫하여 狂을 야기하였던 陽氣는 정신적인 증후의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이 『金匱

4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6.

4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6.

43)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486. “神之靈通變化, 陽氣之精明也, 筋之運動便利, 陽氣之柔和也.”

44)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486.

4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29. “陽氣竭絕, 令人善忘.”

46)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811. “陽氣者, 精則養神, 陽虛, 則神衰所以善忘.”

要略』‘陽氣衰者爲狂’에서의 陽氣 개념과 유사하기 때문이다.⁴⁷⁾

仲景의 다른 저술인 『傷寒論』에서도 陽氣가 손상된 ‘亡陽’에 대한 기술 중 정신적인 증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참고할 수 있다. 『傷寒論』 112조⁴⁸⁾에서는 “傷寒脈浮，醫以火迫劫之，亡陽，必驚狂，臥起不安者，桂枝去芍藥加燭牡蛎散逆湯主之.”⁴⁹⁾라 하여 火法의 誤治에 의하여 驚狂，臥起不安이 나타나는 증후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成無己는 ‘心神浮越’⁵⁰⁾로, 喻昌은 “被火迫劫而飛騰散亂”⁵¹⁾로, 尤怡는 “神被火迫而不守”⁵²⁾로 설명하였으니 대체로 神의 문제로 본 것이다. 尤怡는 특히 이때의 陽을 心の 陽인 神明이라 설명했다. 211조에서는 “發汗多，若重發汗者，亡其陽，譫語，脈短者死，脈自和者，不死.”⁵³⁾라 하여 譫語와 같은 神志 증상이 발생한 것을 설명했다. 여기에서도 ‘亡其陽’으로 陽氣를 손상을 언급하였는데, 錢潢은 ‘神散’⁵⁴⁾이라 설명했고, 喻昌도 亡陽을 神의 문제로 보았다.⁵⁵⁾

이처럼 여러 注家들이 해당 조문의 ‘亡陽’을 ‘神’의 문제로 설명했으며, 이때의 정신 증후들은 ‘陽氣衰者爲狂’이 가리키는 狂의 증후와 관련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IV. 結論

- 47) 확실한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黃帝內經』의 狂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48) 조문 번호는 인용 서적에 근거하였으며 일반적인 宋本 傷寒論의 체례를 따르고 있다.
- 49) 문준전 등. 傷寒論精解.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0. p.252.
- 50) 成無己 注. 注解傷寒論.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89. “火邪內迫，則心神浮越，故驚狂.”
- 51) 陳燭 主編.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6. “此以火迫劫而亡陽者，乃方寸元陽之神，被火迫劫而飛騰散”
- 52) 尤在涇 著, 趙學준 編譯. 傷寒貫珠集.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125.
- 53) 문준전 등. 傷寒論精解.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0. p.428.
- 54) 錢潢 著.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228. “神者，陽之靈也，亡陽則神散而不守.”
- 55) 陳燭 主編.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 “亡陽之人，所存者，陰氣耳，故神魂無主而妄見妄聞，與熱邪升心之候不同.”

본 연구는 『金匱要略』의 ‘陽氣衰者爲狂’에 나타난 陽氣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陽氣衰者爲狂’ 조문의 前後 맥락을 분석하였고, 역대 醫家들의 해석들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黃帝內經』에 서술된 狂에 대한 논설들을 정리하여 ‘陽氣衰者爲狂’이 나타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를 놓고 고찰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金匱要略』 ‘邪哭’ 조문에서 말한 ‘心’은 정신적인 증상의 발현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된 것이다. 이어서 서술된 “陰氣衰者爲癲，陽氣衰者爲狂.”의 ‘陰氣’와 ‘陽氣’는 전신을 운행하는 陰陽氣 중에서도 특히 ‘心氣’의 운동에서 나타나는 陰과 陽의 면모에 관련된다.
2. 『黃帝內經』의 陰陽 개념을 통한 狂에 대한 서술에서는 狂을 주로 陽分의 병증으로 인식하였다. ‘陽氣가 盛’하거나 ‘邪氣가 陽分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狂이 일반적인 양상의 狂으로 볼 수 있으며, ‘陽氣를 脫하게 하여 발생한 狂’은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
3. 『金匱要略』의 ‘陽氣衰者爲狂’에서 말하는 陽氣衰에 의한 狂은 『黃帝內經』의 일반적인 狂과 성격이 달랐다. ‘陽氣衰者爲狂’의 陽氣의 의미 역시 『黃帝內經』의 狂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4. 歷代 醫家들의 견해 중 周揚俊의 『二注』, 黃元御의 『懸解』는 神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해석하고 있어 주목하였다. 특히 黃元御의 『懸解』에서는 ‘神魂’을 陽으로 보는 견해를 제시하여 정신적 작용을 陽氣의 의미에 부여하였다. 또한 陽氣의 虛證이 狂을 촉발한다는 견해를 통해 『金匱要略』의 ‘陽氣衰者爲狂’의 맥락에 가장 가까운 설명을 제시하였다.
5. 『黃帝內經』을 검토한 결과, 동일한 陽氣라도 그 활동이 다양한 층차의 작용을 발휘할 수 있으며, ‘精明’한 활동 양상을 통해 정신적인 작용에 관여할 수 있다.
6. ‘陽氣衰者爲狂’에서 언급한 ‘陽氣衰’란 陽氣의 다

양한 층차의 활동 중에서 정신적인 작용에 관여하는 陽氣의 활동 국면이 衰弱해진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7. 『黃帝內經』과 『傷寒論』에 나타난 ‘陽脫’과 ‘亡陽’에 의한 狂證은 『金匱要略』 ‘陽氣衰者爲狂’에서의 陽氣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는 狂의 病理나 치료를 논하기보다는 그것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 ‘陽氣’의 실체를 밝히는 것에 집중하였다. 독자 중 일부는 이러한 시도가 실용적 가치를 가지기까지는 너무 먼 일이라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陽氣’에 대한 인식은 비단 狂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관점의 확장은 당장 표면적 넓이로 나타나기보다 깊이의 차원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한의학 특유의 陰陽論적 통찰을 통해 다양한 정신 질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결과가 임상 실재에 대한 구체적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1. He R. Jinkuiyaoluexiaozhu.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0.
何任 主編.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2. Wu Q. Yizongjinjian. Seoul. Beobin Publisher. 2006.
吳謙. 醫宗金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6.
3. Zhou YJ annot.. Jinkuiyuhabjingerzhu. Hongkong. shangwu yinshuguan Xianggang. 1971.
周揚俊 補註. 金匱玉函經二注. 香港. 商務印書館. 1971.
4. Xu B annot.. Jinkuiyaoluelunzhu. Shanghai. Shanghai Guji Chubanshe. 1991.
徐彬 注. 金匱要略論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5. You JJ annot.. Jinkuiyaolueshidian. Paju. Jipmundang. 2008.
尤在涇 注. 金匱要略心典 譯解. 파주. 집문당. 2008.
6. Lin HG. Chen Xiuyuan Yishequanshu(I).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9.
林慧光 主編. 陳修園醫學全書(I).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7. Huang YY. Huang Yuanyu Yishe shiyizhong.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6.
黃元御 撰. 黃元御醫書十一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8. Li JR. Beijiqianjinyaofangxiaoshi.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7.
李景榮.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9. Cao YF. Caoshi Shanghanjinkui Faweihekan. Shanghai. Shanghai Kexuejishu. 1990.
曹穎甫 著. 曹氏傷寒金匱發微合刊.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10. Hu XS original work. Eun SM trans.. Huxishu Jinkuiyaolue jiangyi. Paju. Mulgogisooop. 2017.
후시수 지음. 은석민 옮김. 胡希恕金匱要略講義. 파주. 물고기출판. 2017.
11. Hong WS ed.. Jeonggyohwangjenaegyeong Somun.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12. Hong WS. Jeonggyohwangjenaegyeong YoungChu.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13. Wang B ed.. Zhongguangbushu Huangdineijing Suwen. Beijing. Zhongyi Gujichubanshe. 2015.

-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14. Zhang JB original work. Lee NG annot., Leijing. Seoul. Beobin publisher. 2006.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15. Zhang JC. Huangdineijinglingshu Jizhu. Beijing. Xueyuan Chubanshe. 2008.
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8.
16. Li C original work. Jin JP trans.. Sindaeoyoek Pyunju Yixueremen. Seoul. Beobin Publisher. 2009.
李梴 編著, 陳柱杓譯解. 新對譯 編註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17. Zhang YS. Mingching mingyiwuanshudacheng (Sun Yikui).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9.
張印生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孫一奎).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8. Moon JJ et al.. Sanghanlon Junghae. Seoul. Publisher of Kyunghee University. 2000.
문준전 등. 傷寒論精解.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0.
19. Cheng WY. Zhujieshanghanlun. Beijing. Xueyuan Publishing House. 2009.
成無已 注. 注解傷寒論. 北京. 學苑出版社. 2009.
20. Chen Y ed.. Yujiaya yixuequanshu.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9.
陳燭 主編.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1. You ZJ original work. Cho HJ trans.. Shanghanguanzhuji. Daejeon. Jumin Publisher. 2003.
尤在涇 著. 조학준 編譯. 傷寒貫珠集. 대전. 주민출판사. 2003.
22. Qian H. Shanghansuyuanji. Beijing. Xueyuan Publishing House. 2009.
- 錢潢 著. 傷寒溯源集. 北京. 學苑出版社. 2009.
23. Zhang YS ed.. Mingqingmingyiquanshudacheng (Sun Yikui).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9.
張印生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孫一奎).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4. Liu LQ. "Shuai" yingzuo "Po". Sichuanzhongyi. 1985.
劉聯群. "衰"應作"衰". 四川中醫. 1985.
25. Wang GJ. Jiantan "Yinqishuaizheweidian, Yangqishuaizheweikuang". Guoyiluntan. 1986. 3.
王廣見. 講談"陰氣衰者為顛, 陽氣衰者為狂". 國醫論壇. 1986. 3.
26. He PJ, Nian BP. "Yinqishuaizheweidian, Yangqishuaizheweikuang" Xinshi. Zhongyihanshoutongxun. 1994.
何培進, 年伯鵬. "陰氣衰者為顛, 陽氣衰者為狂"新識. 中醫函授通訊. 1994.
27. Wu HX. Lun Jinkuiyaolue Zingshenjibing de Zhengzhi. Guoyiluntan. 2000. 15(6).
吳顥昕. 論《金匱要略》精神疾病的證治. 國醫論壇. 2000. 15(6).
28. Ding DZ. Shishi "Yinqishuaizheweidian, Yangqishuaizheweikuang". Liaoningzhonyizazhi. 2014. 41(5).
丁德正. 試釋"陰氣衰者為顛, 陽氣衰者為狂". 遼寧中醫雜誌. 2014. 41(5).
29. Siku Quanshu Wenyuange Edition [Portable Hard Disk] Ver.2.0. Hongkong. Dizhi wenhua chuban youxiangongsi. 2016.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便攜硬碟模式]2.0.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16.